

거짓과 구원 그리고
존재의 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나에 대해서 모를 때
타인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유아적 경험으로 만들어진 "나"

숨기고 싶고 드러나서는 안되는 나의 부분적 모습이
진짜 나라고 느껴진다.

존재는 느낌이다

나 자신을 숨기기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억압하거나
억제 시킨다. 그러므로 공허감이 밀려 온다.

생각은 존재를 방어한다

거짓자기는 참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맞추기 시작한다.

죽으면 산다

육의 생각의 논리는 진리와 상반된다.

돌아온 탕자

탕자가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욕망은 자유며
진리의 삶을 말한다.

놀 수 없을 때 신경증에 걸린다.

공격성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은 사랑만이 가능하다

사랑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서울중독심리연구소